



셋을 위한 연주

이윤이_두 번 반 매어진
6. 20 - 7. 18
인사미술공간

1, 2. <두 번 반 매어진> 전경. 2014

하모니움이 놓인 자리는 정문의 바로 옆이었다. 초등학교 때 교실에서 볼 수 있었던 풍금과 닮았다. 건반이 있는 부분이 건물 외부를 향해 붙어 있고, 편평한 뒷면이 전시장 안을 향해 있다. 악기가 벽의 일부가 되어 내부와 외부를 관통하고 있는 모양새이다. 악기는 오프닝과 전시 마지막 날 연주가 되었거나, 될 예정이다. 연주가 없는 대부분의 시간에도 상상은 가능하다. 연주자의 뒷모습이 거리를 향하고, 소리는 안으로만 울리게 될까? 회전문처럼 절반쯤 안과 밖으로 걸쳐진 채 무작위의 방향으로 소리를 던져낼 수도 있을 듯하다. 전시장이 문을 닫은 한밤에라도 누군가 호기롭게 페달을 밟아 본다면 창덕궁 너머로 소리가 들릴까? 호기심을 자극하는 이 오르간은 전시의 프롤로그이면서, 전시장 1층에 있는 작품 <Meet me at the Eagle>의 일부이다. 단채널 영상과 반투명한 독수리 모양의 트로피 설치물, 오르간의 도면, 바닥에 깔린 빨간 카펫이 다소 고풍스러운 형태로 배치된 하나의 작품이다. 오르간과 독수리를 연결하는 배경은 필라델피아 메이시 백화점에서 찍은 영상이다. 작동가능한 것 중 세계에서 가장 크다는 파이프 오르간이 있고, 사람들의 만남의 장소로 유명한 독수리 상이 있는 고급 백화점이다. 화려하게 장식된 백화점에 성당에서나 마주할 듯한 거대한 오르간이 놓인 것은 기이한 조합이다. 영상에는 모던의 성전인 백화점에서 두 명의 퍼포머가 종이로 만든

왕관과 망토, 까마귀를 연상시키는 복장을 걸치고 마치 뮤지컬 스키퍼를 읊듯이 노래하거나 백화점의 이곳저곳을 오가는 장면이 겹쳐진다. 백화점을 하나의 무대로 하고 오르간 연주를 배경음악으로 사용한 음악극이 펼쳐진다.

전시의 제목인 <두 번 반 매어진>은 전시 전체를 관람하는 동안, 어떤 암호처럼 머리에 남는다. '두 번 반 매어진' 무언가를 찾게 되고야 마는 것이다. 두 번 반은 횡수로는 결국 세 번의 행위, 세 번의 시도이다. 여기서 셋을 찾아보기란 어렵지 않았지만 완벽하게 무게 중심을 나눈 균형 잡힌 셋은 아니다. 울퉁불퉁한 지면 위에 수평을 잃은 삼각대처럼 어딘가 한 점은 다리가 짧다. 지하층이 이등변 삼각형이라면 1층은 직각 삼각형이다. 작품 제목 <세속적인 삼위일체>처럼 숫자 3이 더 또렷하게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 신문형태로 인쇄된 40매 분량의 종이 작업 <날개 없이 나는 빨간 새를 보았다. 다가갔을 때 그것은 총알이었다>처럼 텍스트, 자살한 여자 연예인의 사진, 그리고 빨간색 넥타이의 매듭 부분을 가까이서 찍은 사진들로 세 가지 요소를 반복 구성한 예도 있다. 다양한 방법과 형태로 묶인 넥타이들의 사진과, 정박한 항구 앞에서 찍은 영상과 같은 요소에서 전시 제목은 한 번 더 매듭이라는 연상의 고리에 연결된다. 이외에도 한 지점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회전 추, 회전문 등 반복적인 모티브들이 눈에 띄지만 작품의

면면은 구조적인 차가움보다는 아기가자기한 재미와 유희로 연결된다. 그리고 보니 전시장 전체도 3층의 구조... 이렇게 연결과 연상은 끝이 없다.

2층은 세 개의 영상과 앞서 언급한 신문작업이 각각의 자리를 나누어 차지하고 있다. 영상들은 모두 등장인물들의 개인사를 중심으로 하는 특정한 이야기를 담고 있으나 각각의 내면의 고백이 주어를 상실한 채 뒤섞이거나 제삼자의 몸이나 목소리로 표현되고, 이야기되고 있는 대상이나 사건을 명백히 지칭하지 않는 영상 이미지들과 함께 맏히면서 결속 가능한 의미 작용들이 끊임없이 흩어지고 있다. <나이프, 스푼, 포크>(2013)는 세 개의 장면으로 연속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수잔 손택은 존 케이지와 머스 커닝햄, 재스퍼 존스의 전시 도록에 기고한 「In memory of their feeling」라는 에세이에서 위 세 작가를 나이프와 스푼 그리고 포크로 가정하고 "그들이 한 비행기(또는 평지(Plane))에 같이 있다면 서로 무슨 이야기를 할까?"를 질문한다. 여기서 착안하여 이윤이 작가는 다른 언어, 국적, 표현 방식을 가진 세 인물을 두고, 그들이 함께 스크립트를 쓰는 동안 각각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서로의 영역 속에 섞여 들어가는 방식을 고안한다. 서로의 이야기의 등장인물이 되면서 타인의 실제 속에 픽션으로서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것이다.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파란 드레스의 모티브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는 명확히





1. 이윤이. Meet me at the Eagle. 비디오 스틸. 7' 3". 2012
2. 이윤이. Meet me at the Eagle. 비디오 스틸. 7' 3". 2012
3. 이윤이. 습지, 영주권, 트리오. 단채널 영상. 4' 7". 2012
4. 이윤이. Maya(not that). 단채널 영상. 4' 46". 2013
5. 이윤이. 나이프, 스푼, 포크. 단채널 영상. 7' 38". 2013
6. 이윤이. 나이프, 스푼, 포크. 단채널 영상. 7' 38". 2013

알 수 없다. 때로는 '나(I)'를 주어로 하는 나레이션이 등장하지만, 또한 '너(You)'의 감정을 설명하는 나레이션이 이어진다. 목소리는 이윽고 글자들로 대체되기도 한다. 팽팽하게 당겨졌다 느슨해지는 천의 형태처럼, 세 개씩 모였다가 흩어지는 나무열매들의 배열장면처럼 이야기는 주인을 찾아왔다 놓치고 마는 연속적 운동이다. 이렇게 “균형에 대한 환상(Fantasy of symmetry)”을 분산하는 몸과, 물체들, 이야기의 연속을 통해 세 개의 장으로 구성된 이 영상은 하나의 주인공이라도 이탈하면 성립될 수 없는 가위바위보의 게임이 된다.

〈습지, 영주권, 트리오〉는 2층에 놓인 세 개의 영상 중, 인물의 상황과 심리를 중심으로 한 사적인 내러티브가 가장 부각된 영상이다. 영주권 문제로 미국을 떠나게 된 연인과의 헤어짐과 브루클린에서 개발에 실패한 뉴저지 한인타운으로의 이사의 과정, 사슴뿔을 쓴 채 화분 속의 관목을 습지로 옮겨 심는 과정이 다소 감상적인 (그리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맨다는 구절로 시작하는’) 가스펠 송과 함께 병치되고 있다. 이민자, 여성, 이주의 과정, 사슴, 모두 연약하고 다치기 쉬운 존재를 대변한다. 젊은 여성의 시선과 행위들로 짐작되는 영상의 이미지가 다소 나이 든 여성의 나레이션과 만나 낮설고 모호한 정체성으로 사적인 이야기를 커버링하는 측면이 흥미롭다. 실제와 허구를

섞어 이야기의 정체성을 흐리고, 개인의 정체성을 혼합하는 구조는 또 다른 영상 〈마야(Not that)〉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마야는 다문화적 배경을 가진 한 여성이고, 마야 문명을 연상시키면서 동시에 ‘거기 없음’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다. 여기에 호명함으로써 의미가 되었다는 김춘수의 시가 인물의 문화적 정체성을 반영하는 배경 이미지와 혼용되어 있다. 실체를 배경으로 하면서도 이에 연상적인 이미지의 조각들이 편집되어 결국 하나의 허구적이고 혼성적인 영상이 만들어진다.

지하층 어두운 공간에 연출된 〈세속적인 삼위 일체〉는 흑백의 2채널 영상과 구석진 곳에 놓인 드럼, 그리고 그 물체를 반사하는 거울로 이루어진 설치이다. 영상 속의 남자는 회전문에서, 여자는 항구에 정박한 배를 배경으로 각각 북을 연주한다. 동일한 자리에서 회전하는 남자와 같이 동서남북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여자도 같은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영상의 두 채널에서 송출되는 리듬의 소리는 전시 공간에서 새로운 연주로 합성되고, 제자리에 머무는 두 남녀의 모습은 관계의 지난하고 반복적인 심리를 묘사한다.

이 전시는 전체가 하나의 연주로 구성되어 있다. 관계, 균형, 환상, 극적 상상으로 재구성된 실제, 목소리 이것은 작품들의 주제와 형식이면서 악보를 구성하는 기호들이다. 드럼과 하모니움과 같은 실제 악기가 설치의 일부로

등장하지만 영상이라는 장치도 하나의 악기로 기능한다. 〈Meet me at the Eagle〉 속에 등장하는 나레이션 “I'm the musical instrument.”에서 ‘I’는 영상에 등장하는 퍼포머인지, 메이시 백화점이라는 공간 전체인지, 혹은 그 모든 상황을 담고 있는 영상 그 자체를 지칭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더 나아가 하모니움은 이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3층의 공간 전체를 지칭하는 계유적 장치로도 읽을 수 있다. 전시장 출입구 옆에 부착되어 회전가능한 이 악기는 전시 공간에 바람을 불어넣는 페달이다. 이곳을 지나 들어오는 순간, 공명 장치로서의 전시장은 악기가 되고, 의미는 연주되거나 변주된다. ㉠